

연숙이 엄마의 성경책

“연숙아 학교가자”

“미영이 왔나”

“네, 아줌마”

머달이 뚝뚝 유리창에 비치는 성경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

“하느님 말씀이...”

허둥지둥 책가방을 챙기는 연숙이...

“미영이랑 밥 한술씩 뜨고 가라”

길이 희끄무레 올라오는 하얀 반과

소꿉이 반찬이 담겨진 작은 반상

조용히 읊조리는 낮은 목소리

“하느님의 제자가 다가오자...”

울컥이는 목구멍에 하얀 쌀밥을 무저 살기며

‘잘 먹겠습니다’ 속으로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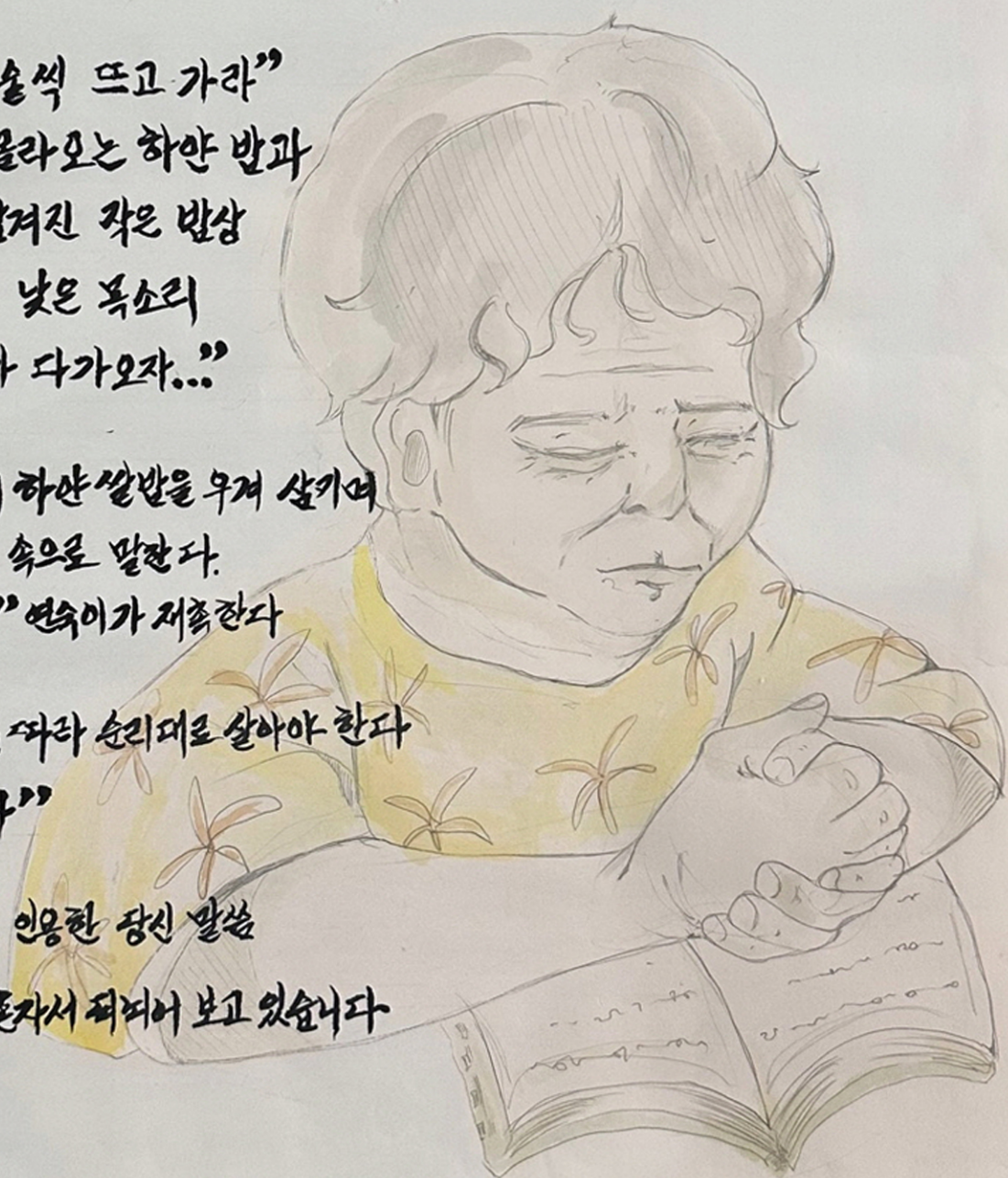
“야 빨리 먹고 가자” 연숙이가 저쪽한다

“항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

그래야 복 받는다”

네, 어머니. 성경을 인용한 장신 말씀

지금도 서기면서 혼자서 펴펴어 보고 있습니다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성서 (The Bible) <예수>
작품 설명	초등학교 시절 부모님들은 가계를 책임지셔야 해서 등교를 못 챙기셨고 등교를 같이하는 친구의 집은 항상 어머님께서 새벽부터 밥을 지어 가족들 케어를 하셨는데 그때 친구인 나까지 아침을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셨다. 어머님은 그 시간에 항상 성경을 읽으셨고 지금도 나는 성경책을 보면 친구의 어머님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속에 울려퍼진다.